

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

역사 속의 발명품

바바리의 '레인코트'

'바바리'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봄, 가을에 입는 가벼운 코트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바바리는 비옷인 레인코트를 만드는 옷감인 개버딘 발명가의 이름이자 상표이고, 레인 코트가 변하여 바바리라는 코트가 탄생된 것이다.

발명가인 토머스 바바리는 영국 사람으로 수십 가지의 특허에 도전했으나 하나도 상품화하지 못해 전전공공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그는 자동차의 튜브 같은 고무로 만들어진 레인코트를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방수옷감을 생각 하던 바바리는 인공고무섬유로 짠 방수옷감인 개버딘을 발명했다.

1901년 바바리 회사가 설립되고 레인코트가 등장하자 시장은 빨간 뒤집혔다.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오노의 '바퀴 오라오라'

바퀴벌레는 모기나 파리처럼 쉽게 퇴치되지 않고, 그 수가 늘기 시작하면 부엌에 음식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을 만큼 골치 아픈 벌레이다.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기체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바퀴벌레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 접착제를 이용한 바퀴퇴치기구 '바퀴 오라오라'이다.

이 '바퀴 오라오라'를 발명한 사람은 일본의 오노이다. 아이디어 박사로 소문난 오노는 청년퇴직 전까지 리코라는 회사에 근무했다. 이 회사에서는 전 사원에게 개선 아이디어를 한건씩 제출하도록 했는데 오노는 자발적으로 매월 한건씩의 안을 내놓을 정도로 아이디어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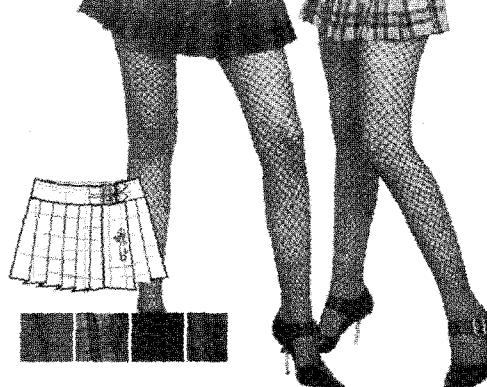
그가 퇴직한 지 7년이 지난 어느날, 저녁식사를 마친 아내가 바퀴벌레 때문에 불결하다고 하자 오노는 즉시 파리채를 헌트로 바퀴채를 고안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바퀴잡이틀을, 다음에는 파리 잡는 끈끈이를 생각하여 바퀴퇴치기구를 완성했다.

메리 퀸트의 '미니스커트'

밝고 산뜻한 거리풍경을 연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미니스커트.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꽉 뽑아 입고 숨은 각 선미를 드러내고 싶은 이 첨단 의상은 영국의 의상 디자이너 메리퀸트 여사가 발명한 작품이다.

1960년 여름, 퀸트는 새로운 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연구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모든 작업을 원점으로 돌리고 생각했다. '여성의 아름다움의 포인트는 얼굴, 다음은 가슴과 엉덩이, 그리고 두 다리의 각선미…' 그러다가 아찔하게 짧은 스커트로 다리 각선미와 엉덩이를 부각시키기로 했다.

미니스커트를 선보이자 '진사의 나라'에서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항의가 빛발쳤다. 그것도 잠깐, 영국 전역은 물론이고 5대양 6대주를 휩쓸어 전 세계가 미니스커트의 열풍에 휩쓸려 버렸다.



발명 아이디어

자동 음식 짜꺼기 압축 장치

이 아이디어는 기존 개수대의 음식물 짜꺼기를 전원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이동시켜 하단 음식물 짜꺼기 통에 보관하는 장치이다.

기존에 설거지 이후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을 개수대 밑 부분에 고정된 통에 모아 두었다가 손으로 들어올려 쓰레기봉투나 쓰레기통에 별도 분리해야 했었는데, 이 장치를 통해서 손쉽고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주부들이 주방 가사일에서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하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성

기존 싱크대가 설치된 각 가정이 모두 대상이 되며, 이를 상품화 하였을 때 제품 원가는 약 3~4만원대이며, 판매가는 6~7만원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부담이 없어 상품 경쟁력이 있다.

발명가 : 김정숙
출원번호 : 2001013558
등록번호 : 특허 245920호

함께
풀어봅시다!

계산식 완성해 볼까?

다음 덧셈의 □속에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 계산식을 완성해 보자.

+		
<hr/>		

해답은 다음 호에…

[지난 호 문제]

두 사람 중 누가 이길까?

[해답]

③ 짱구의 승리

짱구가 100m를 달리는 동안 맹구는 97m를 달린다. 그래서 맹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둘이 동시에 도착해서 무승부로 끝난다. 그러나 짱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짱구가 이긴다. 결승점에서 마지막 3m를 남겨놓고 짱구는 100m를, 맹구는 97m를 달려 같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마지막 3m를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짱구가 맹구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니까 짱구가 이기게 된다.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풀이를 기다립니다.
20일까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보내주세요.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2-538-2710 / 2702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앞
(우편번호 135-980)
e-mail : kwia@inventor.or.kr

특허 Q&A

Q 공개기보란 무엇입니까?

A 공개기보(公開技報) 제도는 기업체 등에서 연구 개발 한 기술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대신에 기술 정보자료의 일종인 공개기보에 게재하여 조기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방어출원 및 부실출원 등 거품성격의 출원억제 유도효과.
- 발명의 조기공개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정보교류 도모.
- 중복연구 방지 및 저렴한 비용으로 발명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특허 관리비용 절감효과.

가. 공개기보 게재 신청 대상

- 공개기보 게재 후에 제3자의 출원에 대한 권리화를 저지 할 수 있는 기술.
- 출판물에 게재해서 주지하고 싶은 기술.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발명 및 고안으로 조기에 공지해 놓고 싶은 기술.
- 선행기술 참증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

* 공개기보는 권리화하거나 또는 권리화 하였더라도 사업화할 수준이 되지 못하는 연구개발 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공개하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기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 공개기보 발행

- 발행 형태 : 문헌자료(전자조판인쇄), CD-ROM, 인터넷을 통한 On-Line 검색 서비스.
- 발행주기 : 매월발행(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발행).
- 수수료 : 공개기보 게재료(신청입력용 S/W 포함). 기본료(1건당 1면 기준) 2만원/건, 가산료(추가 1면당) 5천원/면.

다. 공개기보 배포

공공단체, 도서관, 학교 등에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유료구입을 원하시면 한국발명진흥회(02-557-10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효과

- 초록 작성에서 공개기보 게재까지 일련의 작업을 신청자가 동시에 의회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특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작성비용이 저렴하므로 신청기업의 특허관리비용 절감에 도움.
- 작성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기에 공개할 수 있음.
-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므로 정밀도가 높은 초록이 될 것이고, 신청기업의 교정을 거치므로 신청기업의 의향에 따른 초록이 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제도안내 ⇒ 기타 ⇒ 공개기보제도'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기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특허청 심사조정과 (Tel.042-481-5390)
- 공개기보 발간문의 및 게재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지원팀(Tel.02-557-1077/8, (교)210~214)